

저센 녹색 바람에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논설위원이 간다
지방선거 속으로



이흥재
주필

민주당을 지킨 사람들

“장사꾼과 장녀에게 지조를 바란다는 것은 옛날에도 없었던 일이지만, 선비와 교양인과 지도자에게 지조가 없다면 그가 인격적으로 장사꾼과 장녀와 가릴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청록파 시인 조지훈 선생이 1960년 당시 정권에 아부했던 지도자들의 변절을 질타하며 던진 일갈(一喝, 큰소리로 꾸짖는 말)이다.

선생의 ‘지조론’(志操論)이 나온 지 60년 가까이 흐른 지금, 그때의 상황과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유감스럽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선생의 지조론을 다시 음미해 보는 것은 그때문이다.

6·13 지방선거가 두 달 보름가량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이들이 저마다 나라를 위해 혹은 지역을 위해 일해 보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박해자 전 의원 ‘탈당하라’ 전화 빔빔했지만 사수 ‘친노 배제’ 뒀에 걸린 강기정 전 의원 눈물의 백의종군 ‘시민 시장’ 윤장현 ‘시민과의 약속 저버릴 수 없었다’

아직까지 민주당의 인기는 고공행진 중이다. 그러다 보니 특히 이 지역에서는 후보들이 죄다 민주당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한때, 민주당도 거의 나락으로 빠진 적이 있었으니 불과 2년 전이다. 녹색 바람이 불던 그때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민주당을 지킨 이 그 누구였는가. 오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들 중 몇 사람을 호명함으로써 지나간 과거를 돌아볼까 하는데, 이 또한 의미 있는 일일 듯싶다.

민주당 사수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이는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서구갑)에 출마하는 박해자 전 의원이다. 그는 광풍처럼 몰아친 국민의당 바람으로 광주 지역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을 탈당할 때 끝까지 남아 민주당을 지켰다. 그는 “당시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서는 탈당을 해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전화로 아찔을 맞았다”며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답을 모르겠거든 국민을 보고 가고, 어려울 땐 정도를 가라’고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며 전류를 택했다”고 회고

하기도 했다.

그러고 보니 SNS에 올라온, 영화 ‘히말라야’를 패러디한 그의 선거운동 포스터가 눈길을 끈다. 눈보라를 뒤집어쓴 그의 얼굴 사진 옆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거센 녹색 바람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초유의 탈당 사태 그나마 민주당을 지켰다”

이번에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강기정 전 의원도 민주당을 굳게 지킨 인물이다. 당의 컷오프를 통과했는데도, 당시 김종인 체제에서 ‘친노 배제’의 뒀에 걸려 4선의 문턱에서 주저앉은 그는, 탈당과 분당의 바람이 거센 상황에서 눈물로 백의종군을 선택했다. 대신 5시간 6분의 국회 필리버스터를 끝으로 재출선의 시간을 갖고자 독일행을 택했으나, 이용선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4년 전 광주시장 공천에서 탈락하자 곧바로 탈당을 했던 행적과 대비된다.

끝으로 민주당을 지킨 인물로 이번에 광주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윤장현 현 시장, 그리고 민형배 광산 구청장을 꼽을 수 있겠다.

하지만 민 정장보다는 윤 시장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린 것은 그가 애초 안철수 전 의원의 전략공천으로 민선 6기 광주시장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무엇보다도 산적한 시정 현안이 있는 만큼 현직 시장으로서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윤 시장은 ‘시민 시장’답게 광주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민주당에 남은 것이다.

자, 이제 다음 주 후보 면접을 시작으로 민주당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 대한 공천 심사가 시작된다. 주목되는 것은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을 지킨 이들의 공적을 어떻게 얼마나 평가해 줄 수 있을지 하는 점이다.

다시 조지훈 선생의 지조론으로 돌아가자면 “오늘 우리가 당당한 현실과 이 난국을 수습할 지도자의 자격으로 대망하는 정치가는 권모술수에 능한 직업 정치인보다 지사적(志士的) 품격의 정치 지도자를 더 대망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총정(衷情)인 것이 속일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김빠진 광주시교육감 시민경선

이정선 불참...정희곤·최영태 후보 확정

광주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혁신교육감 시민경선이 3명이 아닌 2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치러지게 됐다.

경선 참여 후보로는 정희곤 전 광주시의원과 최영태 전남대 교수가 확정됐다.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이 “경선률이 불공정하다”며 불참, 독자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본선은 정희곤 현 교육감 대 시민경선 후보 양자대결이 아닌 3파전이 될 전망이다.

광주 혁신교육감 시민경선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8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희곤·최영태 후보와 함께 광주 혁신교육감 시민경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진보성향의 광주시민사회단체 26곳이 참여해 꾸려졌다.

추진위는 “시민경선 과정이 없으면 교육감 후보의 역량과 정책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며 “선거법상 제약이 있지만, 토론회·강연회·정책간담회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해 주요 혁신 의제를 중심으로 후보들의 역량과 정책을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단일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해 결정한다. 경선 투표일 기준으로 만16세 이상인 광주시민, 교사와 공무원 등을 포함해 누구나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다. 추진위는 오는 4월 23일까지 시민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4월 27~28일 이틀간 투표와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한다.

앞서 시민경선 후보 등록을 했던 이 전 총장은 경선률에 불만을 표시하며 불참하고 본 선거에 출마한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진위가 정한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식이 빠져있다”며 “여론조사 지지율이 30% 후반인 현 교육감의 지지자를 배제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현 교육감에 맞선 가장 경쟁력 있는 혁신교육감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현 교육감의 2중대를 뽑는 것에 불과하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 전 총장의 불참으로 경선을 통해 뽑힌 단일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의 경선 보이콧에 따라 표심 결집에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김형욱기자 khh@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임택 ‘청년이 돌아오는 동구 만들것’



임택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28일 “청년이 돌아오는 동구 만들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동구 인구는 광주 전체 평균연령 34세보다 10세 이상이 많은 44세로 노령화와 경제활동 인구의 약화로 인해 도심이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며 “청년이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동구를 만들어 청년이 일하고 숨쉬고 잡자는 청년친화형 자치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칭 ‘광주동구 구청참여 청년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가 구청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이해와 요구,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수훈 ‘골목경제 활성화로 동구경제 살릴 것’



강수훈 더불어민주당 동구청장 예비후보가 27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도전하는 동구’ 정책시리즈 1편으로 ‘동구경제는 골목경제’를 발표하고,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점포 100개와 혁신장인 100명 양성’을 약속했다.

강 후보는 “교육, 의료, 법조서비스가 활성화된 동구의 서비스 경제 기반과 광주에서 가장 많은 골목이 남아있다는 특징을 강점으로 살려 동구경제를 골목 경제로 재탄생시키려는 구상이다”고 밝혔다.

구청장·시장·군수 후보

문인 ‘사회적기업 등 지원시스템 강화’



문인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28일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심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사회적경제는 어떤 가치를 갖느냐와 더불어 영리적 부분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사업계획 수립부터 자금, 세무, 법률 서비스까지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창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기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 창업이 늘고 일자리도 자연히 확대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상필 ‘청년창업클러스터 건립할 것’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28일 “북구 청년창업클러스터(일명 덕후센터)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청년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그 안에서 상상력과 실력으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낼 것이다. 그것이 북구 경제의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 북구청이 광주역으로 이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허브센터(일명 덕후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진원 강진군수 다음달 1일 예비후보등록



강진원(60·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가 다음달 1일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3선 군수를 겨냥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강 군수는 31일 직무정지신청을 한 뒤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강진 직면 출신의 강 군수는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전라남도 정책기획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등을 역임하며 탁월한 업무 추진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앞서 강 군수는 30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강진아트홀 대강당에서 ‘군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성모 함평군수 출마 공식 선언



김성모(66·더불어민주당) 전 함평군 번영회장이 지난 27일 함평읍 엑스포공원 내 금호아시아나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평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회장은 “함평 군민의 마음을 화합시키고, 함평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네거티브와 편 가르기로 군민들의 상처가 크다”며 “뿌리 깊은 함평의 분열을 종식시킬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특히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는 ‘청렴 군정’ ▲군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경영하는 ‘열린 군정’ ▲공정하고 엄정한 리더십으로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한 군정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두석 ‘내 나무 갖기 캠페인’ 전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무소속 유두석 장성군수는 28일 장성군민회관에서 산수유와 황금느릅나무 8000주를 읍·면과 지역 사회단체에 배부하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11개 읍·면 관계자, 3개 실과 소 관계자, 33개 사회단체 회원, 상무대 장병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장성군을 노란 꽃과 나무가 가득한 곳으로 만드는 ‘엘로우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캠페인에서 사회단체 회원, 군장병 등에게 배부된 나무는 읍·면 공한지, 도로변 등지에 식재된다.

송귀근 고흥군수 출마 선언



송귀근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8일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선착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흥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평화당 소속인 송 전 부시장은 “지금 고흥은 분열과 반목이 아닌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며 “고흥군수로 출마해 고흥을 하나로 모으고, 활력이 넘친 희망찬 고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고용 만들기, 귀향 고흥 만들기, 해양관광 고흥 만들기, 잘 사는 고흥 만들기 등 4대 프로젝트를 제시한 송 전 부시장은 “실력·경험·인맥이 검증된 군수, 새로운 희망을 쏘아 올릴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디,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가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더스트 크리너

백필터/카트리지/사이클론 형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주) YHB ECO / 주식회사 YHB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eco6400@hanmail.net

본사 및 영업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터운 12차 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주 공점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062-953-2995
익산 공점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재동) Tel.063-835-4771